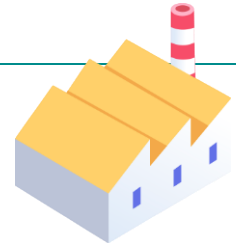


PQC 중 적어도 두 개가 개선된다면



유틸리티 Weekly | 2026.07.1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주간 리뷰 및 관심종목

주간 리뷰

- 주간 커버리지 합산 수익률은 시장을 2.5% 하회했다. 8월 종가 기준 WTI 74.6달러/배럴(WoW +6.9%), 미국 천연가스 3.2달러/mmbtu(+0.3%), 아시아 LNG 현물 16.5달러/mmbtu(+3.1%), 호주산 유연탄 129.1달러/톤(-0.4%), 원/달러 환율 1,505.5원(-2.9%)을 기록했다. 이란의 상선 공격 이후 미국의 원유 판매 제재 면제 취소 및 공습이 이어지며 분쟁이 다시 점화되는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이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유가 방향성이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 올해 안으로 예상되었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 발표는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초안 또는 실무안의 개정 버전은 보다 빠른 시점에 공개될 수 있어 연내 윤곽을 확인할 여지는 아직 존재한다. 주요 확인 사안은 2가지로 판단되며 기저전원 증가와 화석연료 허용이다.
- 전자의 경우에는 석탄보다는 원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형 원전 및 SMR 계획이 11차 전기본보다 확대될 개연성이 충분한 상황이다. 최근 신규 원전 부지 경쟁에서 대형 원전은 울산 울주군과 경북 영덕군이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영덕군이 선정된 바 있다. 따라서 대형 원전의 단기 확장은 최소 2기로 판단된다. 한빛 원전에도 2기의 잉여부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기를 추가하여 최대 4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원전 발전 Mix를 추가적으로 상승시켜야 할 경우 부지를 정하지 않고 특정 미래 시점에 대형 원전 또는 SMR을 다수 반영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후자는 LNG 발전소가 추가로 다수 반영될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2035년 NDC 달성 과정에서 석탄발전은 암모니아 혼소를 통해서도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LNG도 열병합발전을 제외하면 신규로 진입 가능한 규모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만약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LNG 설비가 도입될 경우 기존 탄소중립 맥락에서 제외된 석탄 또는 축소되고 있는 연료전지 등의 수단들까지도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 확보 관점에서 설비의 폐쇄 시점이 늦춰지거나 납기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 발전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도 있다. 특정 시점의 발전 Mix는 최종안이 아니더라도 발표 내용에 일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도별 구체적인 발전량 및 설비용량 추이 여부는 최종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 투자비 부담은 BT 방식으로 민간으로부터 투자비를 조달하는 방식과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자체 자금 확보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후자보다는 전자에 많은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불가피한 선택지가 되겠지만 요금 인상이라는 선택지는 언제나 높은 확률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메가프로젝트는 한국전력의 장기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물리적 인프라 확충에 소요되는 시간과 준공까지 발생하는 여러 민원 요소들을 감안하면 제시된 목표 달성은 전력공급 관점에서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는 속도의 문제고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매우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력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외형 성장과 발전 Mix 변화에 따른 마진 개선 가능성 때문이다. 매출과 비용이 서로 상이한 기율기를 갖고 전력수요에 동행하기 때문에 발전 Mix 개선이 가장 중요한 팩터로 작동한다. 기저전원 비중 감소가 국가 정책으로 제시된 2017년 이후 멀티플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과 해외 원전 수출 가능성이 투영되면서 멀티플이 재평가된 것도 마찬가지로의 맥락이다. Q 성장 대비 낮은 C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12차 전기본을 통해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KAU25) 가격은 9일 종가 기준 25,300원으로 전주대비 6.8% 상승, YTD 143.3%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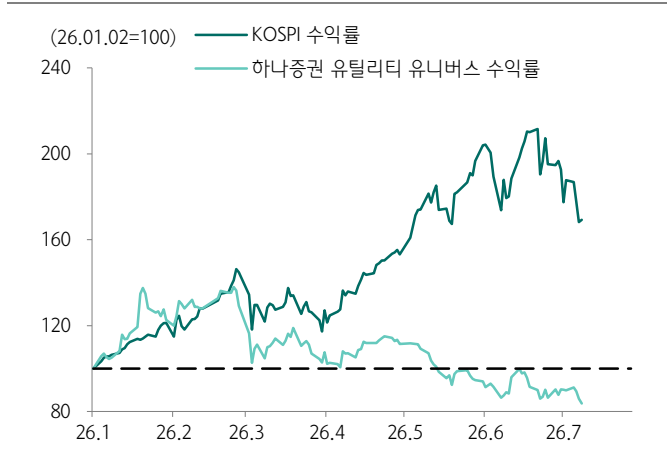
종목 코멘트

- 한국전력: 유가 부담 재차 확대. 환율은 다소 안정화. 중장기 발전 Mix 관련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 대비
- 지역난방공사: 하반기부터 시작될 감익 전망이 수정될 경우 기대 이상의 고배당주로 재평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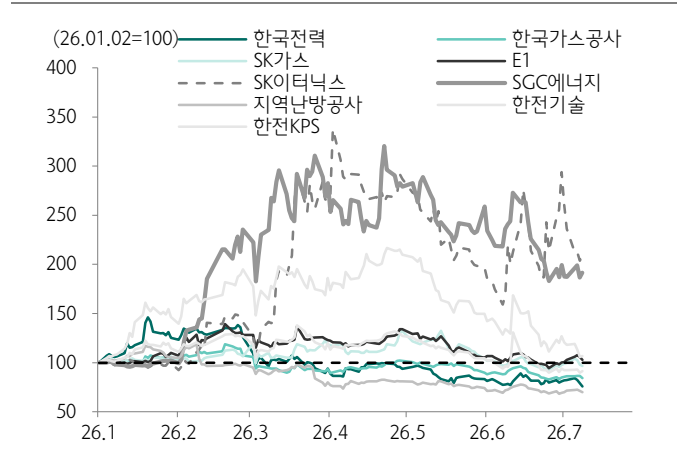
주가동향

종목	주간 절대수익률(%)					주간 수급동향(순매수대금, 억원)		
	종가(7/9)	1W	2W	3W	4W	기관	외국인	개인
코스피(Pt)	7,291.91	(4.7)	(18.3)	(19.5)	(6.1)	13,697	(102,444)	84,627
한국전력	35,200	(7.7)	(9.3)	(10.5)	(1.9)	776	(505)	(265)
한국가스공사	32,300	(1.8)	0.6	(7.1)	(9.7)	27	27	(51)
SK가스	211,500	(2.1)	3.9	(2.1)	(5.8)	52	(5)	(46)
E1	83,100	2.3	5.5	(2.2)	(2.1)	5	7	(11)
SK이터닉스	42,500	(19.4)	(13.4)	(12.7)	4.8	(188)	(39)	242
SGC에너지	41,000	2.1	0.0	(21.2)	(21.5)	46	(40)	(7)
지역난방공사	66,300	0.2	0.5	(4.9)	(5.4)	6	(0)	(6)
한전기술	95,900	(11.5)	(10.0)	(29.8)	(17.6)	(16)	15	(1)
한전KPS	44,750	(0.9)	(1.1)	(12.3)	(9.2)	39	(25)	(14)

섹터 / 종목별 수익률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주요 뉴스

1. 반도체 전력수요에 원전 카드...김성환 장관 “추가건설 조속 검토” - <https://buly.kr/FAfs0Mx>

- 재생에너지의 늘어나는 양만으로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아 원전을 좀 더 추가로 지어야 될지 여부는 빨리 검토
-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을 호남권 재생에너지, 영광 한빛원전, 충남권 석탄 대체 LNG 등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
- 다만 반도체 산업단지가 추가 확대될 경우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추가 원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

2. 호남 반도체 산단과 발전단지 신규 전력망 건설 불필요 - <https://buly.kr/8enpv22>

- 정부가 호남(광주) 반도체 산단과 기존 대규모 발전단지를 연결하는 신규 용통 송전선로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판단
- 기존 한전 공용 전력망과 산단을 연결하는 신규 송전선로만 2030년까지 적기구축 한다는 계획
-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 지역 내 발전력이 넘치거나 부족하면 지역간 용통선로를 활용해 보완이 가능

3.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매 2분할·소매 6분할 검토 - <https://buly.kr/7FTlrfG>

- 발전사와 한전 사이 거래시장인 도매단에서는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2분할하는 지역별 가격제 도입이 유력한 상황
-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광역시·도이며, 나머지 지역이 비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분할
- 비수도권 발전기들에게 지금보다 적게 정산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이 연간 약 1.5조원 안팎으로 관측

4. 호르무즈 해협 개방해도 글로벌 LNG시장 불확실성 여전 - <https://bulky.kr/DaR3B2T>

- 카타르에너지가 프랑스 그룹 EDF 산하 이탈리아 전력 회사인 에디슨에 통지한 불가항력 선언 연장
- 이탈리아 아드리아해 LNG 터미널에 도착 예정이었던 LNG 화물 4척의 추가 선적이 9월 초까지 보류
- JKM의 8월 선물 가격은 6월 24일 기준 백만 BTU당 15.521달러. 전쟁 이전 수준인 2월 27일의 10.697달러 대비 높음

5. E1 인천 남항 1.3조원 LNG발전소 수소공급 사업 좌초 - <https://bulky.kr/2fg4MSj>

- 인천 남항 E1컨테이너터미널(E1CT) 부지에 추진될 예정이던 1조 3000억원 규모의 발전용 청정수소 공급사업 백지화
-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가 문을 여는 2027년 항만 기능 폐쇄
- 부지를 활용해 인천 지역 LNG발전소에 혼소용 청정수소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

6. 국내 첫 석탄→LNG 전환...동서발전, 음성복합 1호기 준공 - <https://bulky.kr/GkugpjX>

- 음성 1호기는 561MW 규모의 LNG 복합발전소. 국내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천연가스 복합발전으로 전환한 첫 사례
- 2022년 11월 본공사에 착수한 뒤 약 43개월 만인 지난 5월 상업운전 시작. 동서발전은 자사 최초로 LNG 직도입 방식 적용
- 1호기에 이어 2027년 9월 508MW 규모의 2호기 공사에 착수해 2030년 준공하면 총 설비용량은 1069MW로 확대

7. “신규 재생E 90%가 화석연료보다 저렴”...韓 태양광도 36% 급락, 해상풍력은 ‘과제’ - <https://bulky.kr/2UJaug>

- 작년 새로 들어선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90% 이상이 가장 저렴한 신규 화석연료 발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전력 생산
- 한국의 경우 유틸리티급 태양광은 2025년 가중평균 LCOE가 MWh당 75달러로 전년 대비 36% 하락
- 반면 해상풍력은 MWh당 142달러로 집계. 중국 49달러와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하며 영국 75달러보다도 두 배 수준

8.李大통령 “정부가 메가프로젝트 기저전원 우려 선제 해결해야” - <https://bulky.kr/6XojwQP>

-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가 소비하는 막대한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안을 현실성 있게 검토하라는 취지
- 메가 프로젝트의 전력과 용수 문제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 이에 올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대규모 기저전원 문제가 반영될지 주목

9. 세계 첫 100% 직류 배전 공장...LS일렉트릭 DC팩토리 'ON' - <https://bulky.kr/8piah2D>

- 태양광과 ESS 등 직류전원을 공장 내 직류 냉·난방설비와 생산시설에서 사용하는 세계 최초 100% 직류 배전공장 본격 가동
- 천안 DC팩토리는 반도체 변압기(SST), 반도체 차단기(SSCB), ESS 등 직류 전용 기기가 적용된 세계 최초 직류 배전 제조시설
- LS일렉트릭 DC팩토리는 직류 시대의 핵심 설비인 ESS용 전력변환장치(PCS)를 100% 직류 전력 기반으로 생산

10. 재생E 늘려도 줄지 않는 온실가스...첨단산업 시대 탄소중립 ‘시험대’ - <https://bulky.kr/G3FeuUW>

-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관련 기업들은 RE100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꾸준히 확대
- 생산공정 확대와 전력 소비 증가가 맞물리면서 온실가스 감축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따른 에너지 소비와 공정가스 사용 증가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가능성 제기

매크로 지표 / 판매실적

매크로 지표 / 원자재 가격 추이												
	단위	7월 8일	1W	1M	3M	1Y	YTD	1W(%)	1M(%)	3M(%)	1Y(%)	YTD(%)
원/달러 환율	원	1,505.5	1,550.9	1,559.4	1,478.6	1,370.2	1,438.4	(2.9)	(3.5)	1.8	9.9	4.7
달러 인덱스	Pt	101.0	101.4	100.1	99.0	97.5	98.2	(0.3)	1.0	2.0	3.7	2.9
WTI	달러/배럴	74.6	69.7	94.3	96.2	69.6	57.8	6.9	(20.9)	(22.5)	7.2	29.0
Brent	달러/배럴	78.0	71.7	93.2	94.9	70.2	61.9	8.8	(16.3)	(17.8)	11.2	26.1
Dubai	달러/배럴	71.9	65.7	89.4	98.4	71.0	61.4	9.4	(19.6)	(26.9)	1.2	17.0
Bunker	달러/톤	457.8	420.3	639.5	650.5	417.2	341.3	8.9	(28.4)	(29.6)	9.8	34.2
천연가스(HH)	달러/MMBtu	3.2	3.2	3.2	2.7	3.3	4.0	0.3	0.0	17.9	(3.6)	(19.1)
아시아 LNG	달러/MMBtu	16.5	16.0	18.8	19.5	13.1	9.6	3.1	(12.0)	(15.3)	25.9	72.5
유연탄(호주)	달러/톤	129.1	129.6	148.8	135.5	109.6	106.7	(0.4)	(13.2)	(4.7)	17.8	21.1

자료: Workspace, 하나증권

판매실적 추이

한국전력

		2026년 4월	2025년 4월	YoY(%)	2026년 3월	MoM(%)	2026년 YTD	2025년 YTD	YoY(%)
판매량 (GWh)	주택용	6,479	6,447	0.5	6,403	1.2	27,904	27,593	1.1
	일반용	10,182	10,055	1.3	10,593	(3.9)	47,265	46,508	1.6
	산업용	22,803	23,176	(1.6)	22,543	1.2	91,098	93,170	(2.2)
	기타	3,265	3,439	(5.1)	3,715	(12.1)	16,204	16,864	(3.9)
	합계	42,728	43,117	(0.9)	43,254	(1.2)	182,470	184,135	(0.9)
판매금액 (억원)	주택용	9,942	9,886	0.6	9,732	2.2	44,134	43,300	1.9
	일반용	16,259	16,032	1.4	17,723	(8.3)	80,412	79,061	1.7
	산업용	38,437	39,113	(1.7)	38,448	(0.0)	163,859	167,063	(1.9)
	기타	3,525	3,659	(3.7)	4,107	(14.2)	17,896	18,299	(2.2)
	합계	68,163	68,690	(0.8)	70,009	(2.6)	306,302	307,724	(0.5)
판매단가 (원/kWh)	주택용	153.5	153.3	0.1	152.0	1.0	158.2	156.9	0.8
	일반용	159.7	159.4	0.2	167.3	(4.6)	170.1	170.0	0.1
	산업용	168.6	168.8	(0.1)	170.6	(1.2)	179.9	179.3	0.3
	기타	108.0	106.4	1.5	110.5	(2.3)	110.4	108.5	1.8
	평균	159.5	159.3	0.1	161.9	(1.4)	167.9	167.1	0.4

한국가스공사

		2026년 5월	2025년 5월	YoY(%)	2026년 4월	MoM(%)	2026년 YTD	2025년 YTD	YoY(%)
판매량(천톤)	도시가스	1,177	1,130	4.2	1,349	(12.8)	9,824	9,961	(1.4)
	발전	1,198	1,263	(5.1)	1,321	(9.3)	7,447	6,933	7.4
	합계	2,375	2,393	(0.8)	2,670	(11.0)	17,271	16,894	2.2

지역난방공사

		2026년 5월	2025년 5월	YoY(%)	2026년 4월	MoM(%)	2026년 YTD	2025년 YTD	YoY(%)
판매량 (천Gcal, GWh)	열	579	646	(10.4)	816	(29.0)	8,396	8,706	(3.6)
	냉수	28	23	21.7	17	64.7	81	73	11.0
	전기	884	620	42.6	1,172	(24.6)	6,663	6,897	(3.4)

자료: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하나증권

일별 SMP 및 수요예측 추이 (육지 기준)		7월 2일(목)	7월 3일(금)	7월 4일(토)	7월 5일(일)	7월 6일(월)	7월 7일(화)	7월 8일(수)
SMP(원/kWh)	최대	153.19	153.72	119.00	125.07	155.28	156.37	155.26
	최소	91.86	92.69	90.99	89.62	92.44	92.91	92.62
	가중평균	123.73	121.91	102.57	100.90	136.43	137.19	134.30
수요예측(MW)	최대	74,520	74,830	65,105	65,150	79,218	78,687	77,462
	최소	53,899	53,517	52,652	49,364	50,149	55,963	56,277
	가중평균	64,550	65,280	58,228	56,587	67,816	69,441	67,735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일별 전력수급실적 추이		설비용량 (GW)	공급능력 (GW)	최대전력(GW)				최소전력(GW)		공급예비력 (GW)	공급예비율 (%)
	금년			전년	증가율(%)	시간대	금년	시간대			
7월 2일(목)	159.4	100.4	77.3	89.1	(13.2)	20시	57.3	05시	23.1	29.8	
7월 3일(금)	159.4	101.3	76.6	84.9	(9.8)	17시	57.8	05시	24.7	32.3	
7월 4일(토)	159.4	99.7	70.1	77.9	(10.0)	20시	56.4	05시	29.6	42.3	
7월 5일(일)	159.4	99.4	70.2	78.7	(10.8)	20시	53.2	06시	29.2	41.6	
7월 6일(월)	159.4	101.8	82.9	93.4	(11.2)	19시	53.7	04시	18.9	22.8	
7월 7일(화)	159.4	101.6	87.0	95.7	(9.1)	20시	59.8	05시	14.7	16.9	
7월 8일(수)	159.4	102.6	85.3	92.7	(7.9)	15시	60.5	05시	17.2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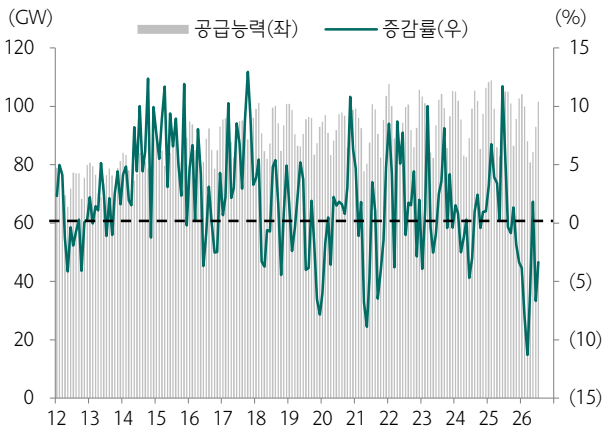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주간 기저발전 예방정비 계획 (7월 2주차)		
석탄	당진	#4 : 4.29 - 7.14 / #5 : 3.30 - 8.5 / #8 : 7.1 - 7.6
	보령	
	신보령	
	삼천포	
	여수	#2 : 4.22 - 7.5
	영흥	#2 : 1.1 - 9.21 / #4 : 4.1 - 7.19
	태안	
	신서천	
	하동	
	삼척그린	#1 : 4.1 - 7.4 / #2 : 6.28 - 7.4
	북평	
	고성	
	강릉안인	
	삼척화력	
국내탄	동해	#1 : 6.22 - 6.27
원자력	고리	#3 : '24.9.28 - '26.12.31 / #4 : '25.8.6 - '26.12.31
	신고리	
	한빛	#1 : '25.12.9 - '27.3.31
	한울	#2 : 5.20 - 6.30 / #4 : 5.18 - 8.3
	신한울	
	월성	#2 : '25.9.1 - '26.8.12 / #3 : '25.9.26 - '26.7.24 / #4 : '25.7.18 - '26.9.11
	신월성	
새울	#1 : 7.2 - 8.31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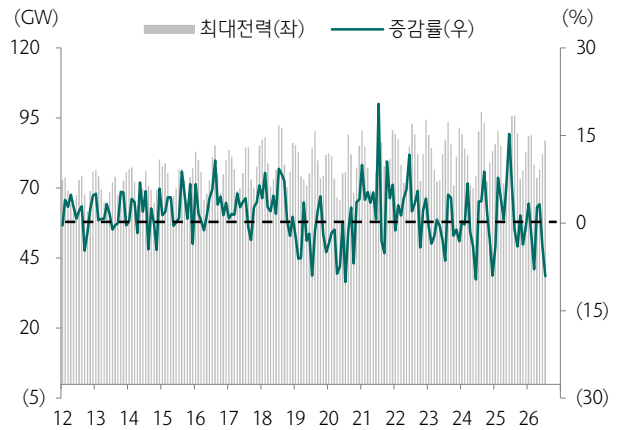
주요 차트

도표 1. 월별 공급능력 (7월 7일 최대수요 기준 YoY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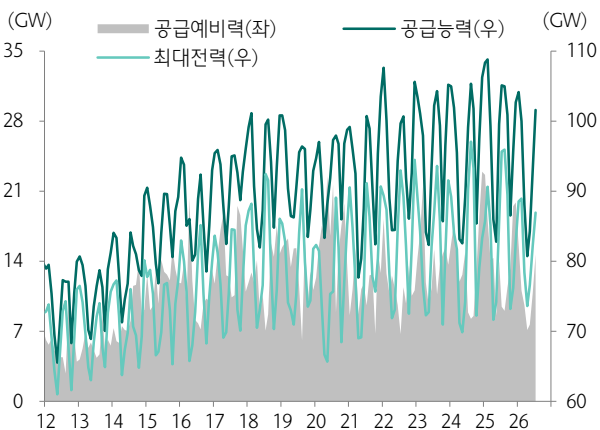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2. 월별 최대전력 (7월 7일 최대수요 기준 YoY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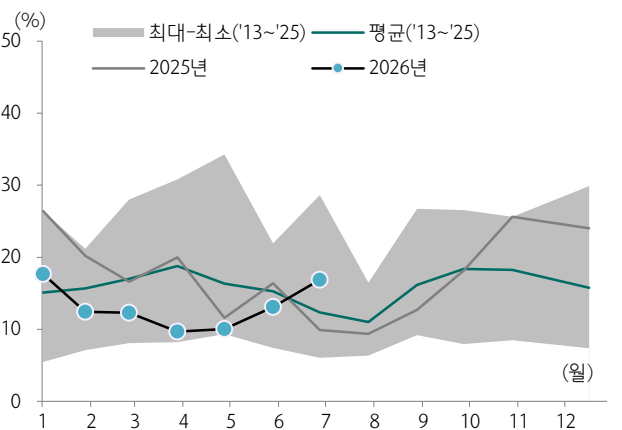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3. 월별 공급예비력 (7월 7일 최대수요 기준 YoY +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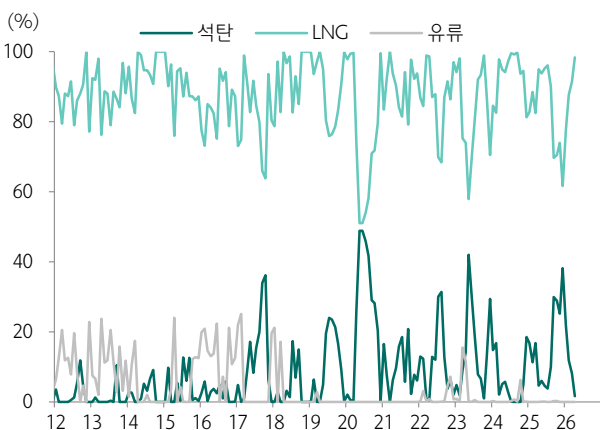
주: 최대전력일 기준.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4. 월별 공급예비율 (7월 7일 최대수요 기준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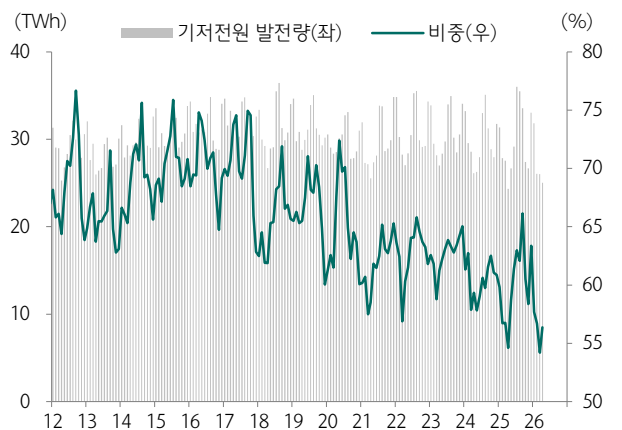
주: 최대전력일 기준.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5. 연료원별 SMP 결정비중 (4월 기저전원비중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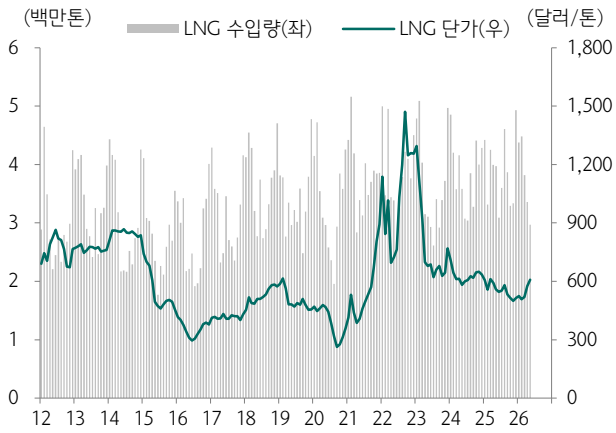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6. 기저발전량 비중 (4월 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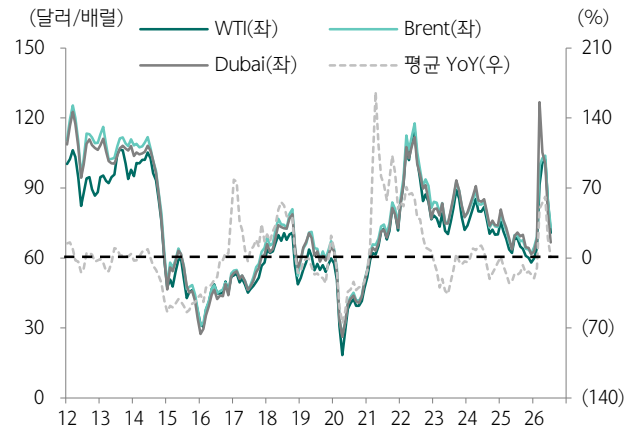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하나증권

도표 7. 국내 LNG 수입량/단가 (5월 YoY -25.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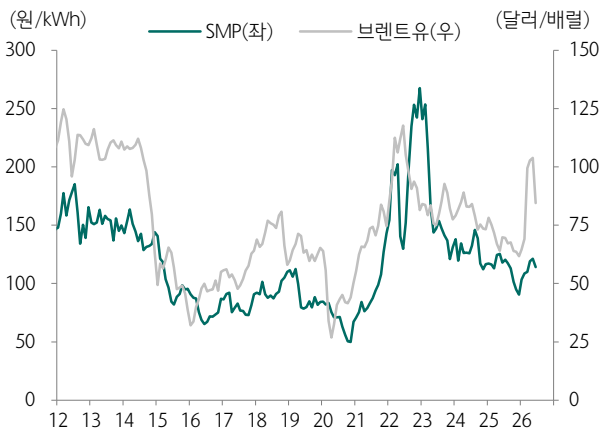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8. 국제유가 (7월 3대 유종 평균 YoY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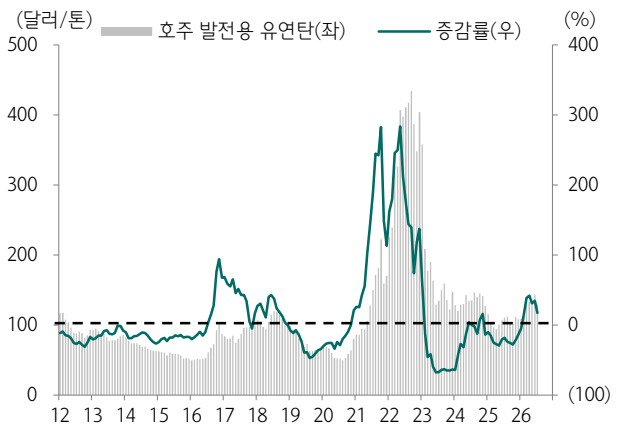
자료: Workspace, 하나증권

도표 9. SMP와 국제유가 추이 (6월 SMP YoY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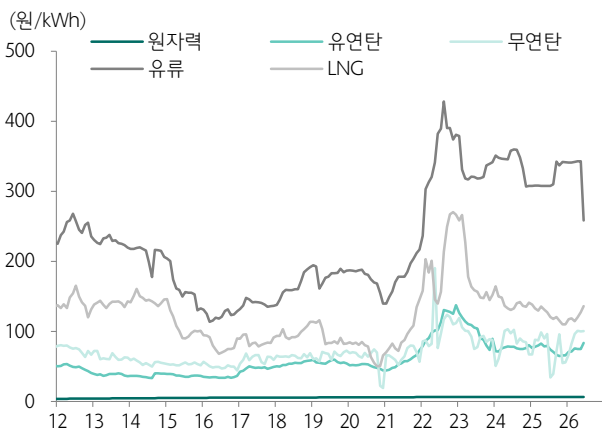
자료: EPSS, Workspace, 하나증권

도표 10. 호주 발전용 유연탄 (7월 YoY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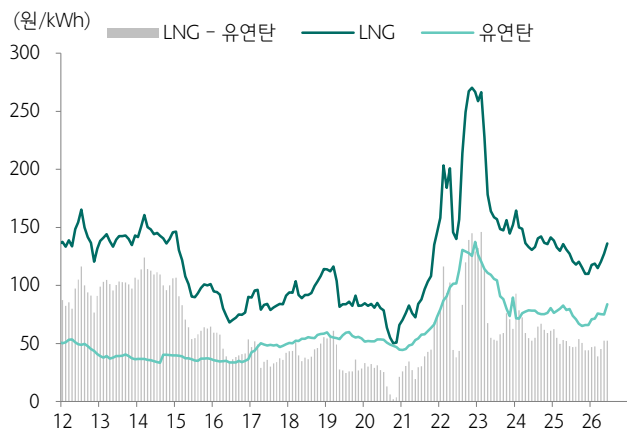
자료: EPSS, 하나증권

도표 11. 연료비단가 (6월 LNG YoY +7.0%)



자료: EPSS,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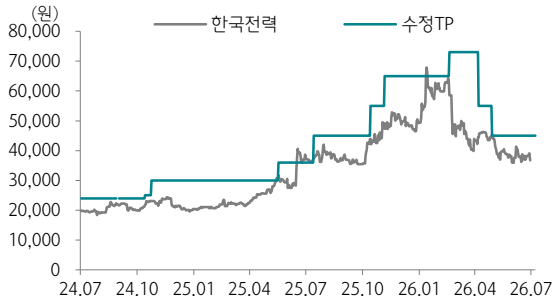
도표 12. LNG/유연탄 연료비단가 격차 추이 (6월 52.37원/kWh)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투자이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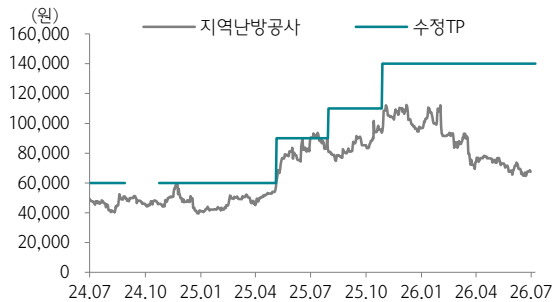
한국전력



날짜	투자이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5.7	Neutral	45,000		
26.4.15	BUY	55,000	-17.38%	-15.73%
26.2.27	BUY	73,000	-37.81%	-30.27%
25.11.14	BUY	65,000	-16.11%	4.46%
25.10.22	BUY	55,000	-18.18%	-9.91%
25.7.22	BUY	45,000	-15.71%	-2.56%
25.5.26	BUY	36,000	-7.36%	12.78%
24.11.1	BUY	30,000	-24.37%	2.33%
24.10.22	BUY	25,000	-8.74%	-7.60%
24.9.10	BUY	24,000	-13.68%	-7.29%

투자이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지역난방공사



날짜	투자이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5	BUY	140,000		
25.8.8	BUY	110,000	-22.37%	-7.64%
25.5.14	BUY	90,000	-8.49%	4.11%
24.11.1	BUY	60,000	-20.18%	-1.50%
24.9.6	BUY	-	-	-
24.2.27	BUY	60,000	-26.49%	-10.83%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7월 1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유재선)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유재선)는 2026년 7월 10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이견 비율공시

- 투자이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7.27%	2.73%	0.00%	100%

* 기준일: 2026년 07월 07일